

# 2014년도 제 3차 이사회 결과보고

## □ 이사회 개요

- 일 시 : 2014. 09. 30.(화) 16:00 ~ 19:00
- 장 소 :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
- 참석인원 : 총 29명
  - 임 원 : 15명
    - 이 사(14명/18명): 이사장) 이희재, 원장) 오재록,  
이사) 이충호, 김광성, 이진선, 조관제,  
장태산, 김재웅, 원수연, 전세훈  
※서면결의 : 백원장, 김재훈, 송종길, 이양원
    - 감 사(1명/ 2명) : 박상민
  - 배 석 : 14명
    - 부천시 관련직원(2명) : 최영현 팀장, 박동규 주무관
    - 진흥원(12명) : 김종선 전문위원, 오동택, 이용철, 김대진, 김선미,  
김충영, 최미영, 오덕영, 백정재, 김세미가,  
박은선, 김선형
- 회의내용
  - 부의안건 (2건)
    - 제2014-9호 : (재)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규정 개정(안)
    - 제2014-10호 : 2014년도 수입·지출 4차 예산 변경(안)
  - 기타사항 (3건)
    - 제 1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결과 보고
    - 2015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요 사업 방향 보고
    - 2014년도 제 2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## □ 회의 결과

### ○ 부의안건 처리결과

의안번호	안건명	구성 인원	결의의원		서면결의/미참석/기권	처리결과
			찬성	반대		
제2014-9호	(재)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규정 개정(안)	18명	10명	-	4명 / 4명 / 0명	원안 통과
제2014-10호	2014년도 수입·지출 4차 예산 변경(안)	18명	10명	-	4명 / 4명 / 0명	원안 통과

### ○ 부의안건 주요의견

의안번호	안건명	발표자	의견내용
제2014-9호	(재)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규정 개정(안)	오재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정되는 부분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친 상황임.</li> </ul>
제2014-10호	2014년도 수입·지출 4차 예산 변경(안)	원수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폰트는 예전부터 지원되어 와서 작업하는데 폰트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. 좀 더 개성있는 폰트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함. 기존에 선생님들이 직접 쓰신 그런 글씨 개발을 만화계에서 해줬으면 함.</li> </ul>
		오재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실적으로 다음과 네이버에 연재하지 않고 다른데 올릴 때 폰트 문제가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, 폰트 지원을 범용화해서 수혜대상을 조금 더 넓힌 후에 그 다음에 만화전문폰트 개발을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하고자 함.</li> </ul>

### ○ 기타사항 주요의견

기타사항	발표자	의견내용
제 1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결과 보고	이희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굴렘 특징이 저작물들이 출판부수와 더불어 쏟아져 나오고, 수많은 세계각지에 그 작가의 책을 사고 사인을 받으러 오는 건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?</li> <li>우리나라 만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웹툰을 중심으로 인터넷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인터넷을 축제에 일정하게 부스라던가 코너식으로 배치를 한다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수많은 팬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음. 내년엔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함.</li> <li>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축제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함.</li> </ul>

제 1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결과 보고	김광성	· 청소년이상 층들도 올 수 있도록 절충선을 맞추면 좋겠음. 판을 조금 더 다른 판으로 깔아보자.
	오재록	· 축제에 비만화적인 요소들을 축소시켜 나가려고 함. 정말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구조로 변경시켜 나가겠음.
	원수연	· 웹툰을 따로 구분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음. 이제 연재하면 다 웹임. 오히려 웹툰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만화 축제에서 챙겨 가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음.
	이희재 이충호	· 웹툰이 갖고 있는 대중성을 활용하고 작가들을 다양하게 배치 해야 함.
	장태산	· 대중에게 외면 받는 작가들을 초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지 생각해 봐야함. 아직 우리나라가 다양성을 인정할만한 문화가 되지 않음.
	김광성	· 진정한 만화 마니아를 위한 축제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자.
	조관제	· 현재 진흥원 홍보대행사는 만화가들을 심층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능력이 없지 않나 싶음. 심층적인 내용이 있는 홍보가 먼저 돼야 함. 기사 생산 능력과 활용하는 쪽을 강조했으면 좋겠음. · 축제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나온 사진들을 메일이나 편지로 보내주면 좋겠음.
2015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요 사업 방향 보고	원수연	· 웹툰 창작 장비지원 사업은 작가들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함.
	장태산	· 액정 테플릿은 원고를 그리는 판이기에 작가한테 줬을 때 의미가 있는거지 단체에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음.
	오재록	· 그 부분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계하게 되어 있음. · 작가 개인한테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.
	조관제	· 진흥원에서 만화계에서 하고자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때 대한민국 만화계가 전부 동참을 한다는 힘을 실어줘야 함.
	이충호	· 만화가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,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만화진흥원까지 포함해서 정부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고 수정,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함.
	이희재	· 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곧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대등해 지려면 만화계의 의견이 총합되어 있어야 함. 따로

2015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요 사업 방향 보고		는 만화계의 힘이 넘치기도 하고, 부족하기도 하고, 타 이밍이 안 맞기도 하는데 진흥원이 그런 것들을 조력 하는 입장에 있어야 함.
	이충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로 만화가 선생님들의 점진적인 연재공간을 진흥원 에서 사업차원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함.</li> <li>• 만화의 날을 부천시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건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음. 이 부분을 국고지원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함.</li> </ul>
	조관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별첨3, 28~29쪽 디지털신기술교육 예산 내용 중에 만 화아카데미 강사양성과 창의소재만화개발이 빠져있음.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8페이지 만화규장각 DB사업이 현재 대한민국 만화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라던가 내용이 미약하지 않나 싶 음.</li> <li>• 42페이지 만화박물관 전시사업에서 작가에게 지원금 지원 횟수를 확장시켜서 박물관 사람들이 자주 찾아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.</li> </ul>